

광주시의회 기초의원 '4인 선거구' 6곳 분할 추진 소수 정당·시민단체 강력 반발

“민의 대변 외면 지방의회 독점 발상”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분할 위기를 맞으면서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185회 임시회 중인 오는 5일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안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4인 선거구에 대해 현행 6곳을 유지하고, 2인 선거구는 4곳, 3인 선거구는 9곳으로 총 19개 선거구 59명의 구의원을 두는 '광주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4인 선거구 6곳은 동구와 남구 각각 1곳과, 북구와 광산 각각 2곳씩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6곳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데 의견을 모으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선거구당 기초의원을 2~4명씩 뽑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2인 선거구에서는 한 선거구당 1, 2위 2명을, 4인 선거구에서는 한 선거구당 1~4위까지 4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수 정당의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2인 선거구보다는 4인 선거구가 유리하다.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광주는 모두 6곳에 4인 선거구제가 적용되면서 민주노동당의 경우 8명의 구의원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한 최종 의결권한을 전 광주시의회 소속 의원은 모두가 민주당이어서 이번 기회에 선거구 분할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시민단체와 군소 정

당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 희망과 대안, 광주·전남 진보연대, 광주·전남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진보 신당·국민 참여당 광주시당 등 야 3당은 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가 광주시의회 최종 통과를 앞두고 2인 선거구로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미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또다시 지방의회를 독차지하려는 것으로, 지

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자신들의 밥그릇이라는 ‘기득권’ 챙기기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로 대변되는 중대 선거구제는 민의를 대변하고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아내는 진일보한 선거제도”라며 “민주당과 광주시의회는 4인 선거구 분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진표 의원 경기지사 출마 선언

김진표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희정 최고위원, 한명숙 전 총리, 김진표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참석 의원들 소개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민중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희정 최고위원, 한명숙 전 총리, 김진표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참석 의원들 소개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 1인 年 300시간 줄여 일자리 200만개 창출”

‘뉴민주당 플랜’ 일자리 정책

민주당은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뉴민주당 플랜’ 일자리 분야 정책을 발표하며 민생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예산 뒷받침도,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공공부문의 역할도 없는 ‘3무(無) 대책’”이라고 혹평하고 고용친화적 성장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정책으로 우선 사회적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21.3%)에도 못 미치는 13.8%에 불과하다”면서 “육아·노인보호 등 돌봄 노동을 사회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100만 개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키로 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한 정부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1인당 연간 총근로시간의 300시간만

줄여도 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4대 보험료 한시감면 등을 통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연대보증 폐지 ▲대형건설사의 공공 공사 직접시공 30% 의무화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도입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요석 원장은 “일자리 문제는 국민·참여정부도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제 반성·성찰하고 정책을 바꿀 터닝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예비후보 등록’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점

예비후보 등록 할 경우	구분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	불가
간판·현판·현수막 무제한 가능	사무소 간판 등	불가
2~5명 선임 가능	유급선거사무원	불가
홍보 명함 배부하며 지지호소 가능	명함 배부	의례적 명함만 가능(학력·경력 기재 불가)
이메일 통한 선거운동 가능	이메일	의례적 메일만 가능(홍보메일 대량발송 불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 선거운동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 가능	전화·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불가
가능	홍보물 발송	불가
가능	어깨띠 착용	불가
가능(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만)	공약집 판매	불가

명함·어깨띠·현수막 설치 가능 이메일·전화로 선거 지지 호소

■ 6·2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장점

6·2 지방선거 120일전인 2일부터 선거전이 시작된다. 시도지사 와 시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예비등록 거처에서 명함을 돌리고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적지 않다. 등록을 할 경우 제한적 선거운동이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지지호소를 할 수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우선 예비후보자는 사실상 ‘선거캠프’를 차릴 수 있다. 1곳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과 현판, 현수막 등을 규격과 수량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붙일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2~5명의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이다.

애플과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거리유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어깨띠를 착용하고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돌리며 지지호소를 할 수 있다. 지지호소 내용인 담긴 이메일의 대량 전송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통상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명함교환과 이메일 교환 이외의 활동은 할 수 없다.

또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통한 직접적인 지지호소를 할 수 있고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휴대용 문자메시지도 대량으로 보낼 수 있다.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고, 공약집을 판매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유일하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선거 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본

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거에 나서는 현직 단체장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선호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이 자기 지역 단체장 선거에 다시 나서 예비후보 혹은 후보로 등록을 할 경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인지도를 확보한 단체장의 경우 이름을 알리기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것보다 기존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내활동을 하는 게 선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박광대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1천만원의 기탁금이 필요하다.

한편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들은 오는 19일부터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나라 오늘 광주서 국정정보대회

정몽준 대표 등 참석

한나라당은 2일 광주시 북구 한나라당 당사 5층 대강당에서 광주·전남도당 국정정보 대회를 갖는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정정보 대회에는 정몽준 대표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재순 최고위원, 박순자 최고위원, 장광근 사무총장, 한대수 제2사무부총장

을 비롯한 김광만 시장 위원장, 김기룡 도당 위원장 등 당원 500여 명이 참석한다.

중앙당 최고위 당직자들은 이날 국정정보 대회에서 ‘국민 성공시대’, ‘MB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 차질없는 혁신도시 건설을 확인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배출과 두 자릿수 지지율 확보를 위

해 매진해줄 것을 당원들에게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 설명과 함께 당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광주·전남 혁신도시 건설이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공천 방향과 지역 인재영입, 지지율 확보를 위한 대책 등 지방선거 향후 일정과 방침을 공개하고, 석패율제·지역비례대표제 등 선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월 9일 9시 **고민인 2월 1일 시작반** **이투스** **현재 수강예약접수중**

시대생 시험패턴 변화바람 **외갈시다. 똑같은 공무원 대우, 채용인원과 시험기회가 많다.** **임용고시복교육해정지**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9월 문제풀이 **소방직**

마감유 의 현재수강접수중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234-0234